

이해받지 못한 자들의 슬픔

Sorrow of
those who are not understood

글. 최상철
Choi Sangcheol
건축사사무소 연백당

얼마 전, 또 하나의 안타까운 부음이 당도했다. 그저 무탈 하리라고만 애써 믿고 있었는데, 스스로 먼 길을 재촉했다는 비보에 나는 보축(補築) 한쪽이 송두리째 떨어져나간 성벽의 잔재처럼 그만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내려앉고 말았다.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거쳐 가야 할 길목이지만, 못 생명들이 다시 파릇파릇 돌아 나는 이 봄날의 부음에는 자못 더 비감해지지 않을 수 없다.

우리 인간은 싫든 좋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'자아(ego)'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. 누구나 더 인정받고, 또 더 이해받기 위해서 산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.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더 많은 칭찬을 갈구하며 살고, 좀 더 자라서는 동료나 친구 그리고 점차 확대되어가는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평생을 발버둥 치며 살다가, 나중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할 나이가 되어서도 후배들에게 좀 더 그럴듯한 사람으로 칭송받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다.

물론 편견일 수도 있다. 그렇지만 그렇게 손사래 칠 일만도 아니다.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갈등과 충돌은,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타인에게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다고 인식되는,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된다. 증상은 다양하다. 어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자주 화를 내기도 하고, 또 어떤 때는 아주 깊은 우울의 늪에 빠져있는가 싶다가도 다시 급작스레 체념하는 등 좀처럼 감정의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, 어느 임계점에 이르러 마침내 탄성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정말 예기치 못한 자기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.

아마 우리 인간이 '동굴'이나 '움집'이라는 인류최초의 집단주거지에서 바둥거리며 생존하던 저 먼 태곳적에서부터 우리들의 집단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온, '무리에서의 이탈'에 대한 시원적인 두려움이 작동되고 있는 탓인지도 모른다.

그러나 지난 우리역사 속에서는, 되레 그 시대와 민중들에게 구차한 이해를 구하려 하지 않은 채, 제 소신에 따라 초연히 사라진 사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. 단재 신채호 선생이 '조선역사상 1천 년 이래 최대 사건'이라고 높이 평가한 묘청(妙淸)이 그랬고, 유교적 이상정치를 척박한 조선사회에 구현하려다가 사화(士禍)로 죽음을 당한 정암 조광조가 그랬으며, 또 해방직후에는 이 땅에 진보정치의 초석을 놓다가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에 묶여 그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만 죽산 조봉암이 그랬다.

그런데 그렇게 이해받지 못하고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, 비단 우리 역사와 정치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. 흔히 꿈뻐(competition)라고 불리기도 하는, 우리건축의 '건축설계공모전'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다. 내건 주제를 잘 파악하고 계획안까지 훌륭했으나, 너무도 앞서나간 빛나는(?) 설계였던 탓에 당선되지 못하고 아깝게 사장(死藏)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.

사실 요즘 건축설계공모전은 어딜 가나 다들 화려한 모델(model)과 조각도로 넘쳐난다. 그리고 그 완성도 여부가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인지, 너나할 것 없이 걸뭇내기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 같다. 때로는 건축개념이 그럴듯하게 표현된 출품작이라고 할지라도, 우선 돋보이지 않으면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라는 조바심 탓일지도 모른다.

분명 작금의 우리 건축설계공모전이 쪽쪽 뺏은 미인을 뽑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아닌 것만은 분명한데도, 우선 그 외양부터 살피고 색상을 감별하기 바쁘다. 어찌 보면, 마치 열병하듯 차례로 줄지어 세워놓고 앞뒤로 돌려가며 훑어보면서 얼마나 덜 부자연스럽게 성형수술을 했는지, 얼마나 고급 의상과 화장품으로 치장을 했는지, 또 얼마나 준비된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뇌는지 등의 별 시답지 않은



것에 몰두하다가 결국 그 중 어느 하나를 가려 뽑는 미인선발대회 방식과 흡사하다고 할 수도 있다.

그 과정에서 밤새 공간의 의미가 되새겨지고, 삶의 흔적으로 절여진 설계안이 사라지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. 아주 오래 전 자유당 시절 「국회의사당」 건축설계공모전에서도 지금의 저 상여(喪興)의 몸체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국회의사당이 그랬을 테고, 좀 더 세월이 흐른 지난 80년대 중반 「독립기념관」 건축설계공모전에서는 또 다른 독립선언을 주창한 계획안들이 그랬을 것이다. 그리고 최근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「서울시청사」와 「광화문광장」 등의 건축설계공모전에서도 당선작과 경합을 벌인 그럴듯한 작품들이 이른바 '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'에서 가차 없이 추방되고 말았다.

단 하나의 당선작으로 인정받지 못하면, 꼴등이나 이등이나 별 구분 없이 모두 다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한다. 신춘문예처럼 낙선 작품집이 발행되지도 않고 또 먼 훗날, 끝내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미완의 혁명으로 기록되지도 않는다. 안타깝지만 당선되지 못한 설계안은, 어느 시인의 시어(詩語)처럼 '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'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신세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다.

어디 건축설계공모전에서만 그러하랴! 다른 사람들의 거주공간을 손끝 하나로 좌지우지하게 되는 건축설계의 특성상, 다양한 협의와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지만, 그 진정성을 이해받지 못하거나 무지한 건축주를 이해시키지 못하게 되면, 한때 설계자를 가슴 뛰게 만들었던 설계안조차 누군가의 저저분한 배설물처럼 흔적 없이 치워져야만 한다. 그게 배척당한 자들이 오히려 감내해야 할 숙명인 셈이다.

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. 설사 채택되지 못한 설계안일지라도 당선작의 '하

자품'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. 어쩌면 그 시대의 시류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지 못했거나 좀 더 치열한 전투태세를 갖추지 못했을 뿐, 우리 시대를 너무 앞서나간 이상주의자들의 작품이었을지도 모른다.

사실 우리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굴러올 수 있었던 것만 해도, 당시 한때나마 승자로 포효했을 김부식과 유자광, 이승만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대척점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지키려다가 그만 자의반(自意半) 타의반(他意半)으로 사라져야 했던 묘청(妙淸)과 정암(靜菴), 그리고 죽산(竹山)이 존재했기 때문이다. 한때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했을지라도, 그들에 의해서 우리역사가 그만큼 진보되어 온 것이라고 믿고 싶다.

꽃향이 질어지는 올 봄, 또다시 수많은 유토피아를 꿈꾸다 그만큼 더 자주 고개를 떨어뜨리기도 해야 할 숙명을 지닌, 우리 건축사 여러분들의 건투를 빈다.



최상철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· 건축사

건축사 최상철은 전북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치고, 현재「건축사사무소 연백당」대표건축사로 활동하고 있다. 그 동안의 건축설계과정에서 현대건축의 병리현상에 주목하고, 산 따라 물 따라 다니며 체득한 풍수지리 등의 「자연사상」을 건축에 도입하기는 방식으로 우리의 소중한 살터들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서, 「건축」에 담겨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다. 저서로는 「내가 살던 집 그곳에서 만난 사랑」 「전주한옥마을」 등이 있다.

ybdccs@naver.com